



“ 협회 활성화 통해 회원 권익증대 최선 ”

한국라벨정보산업협회 회장

유정기

지난 4월15일 열린 한국라벨정보산업협회 2005년도 정기총회에서 (주)삼성프린팅 유정기 사장이 신임회장으로 추대됐다. 유정기 신임회장은 협회 정관을 변경해 문턱을 낮추고 대외 홍보에도 적극 나서 라벨인쇄업계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유정기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회원 늘리고 협회 활성화 위해 노력

“라벨협회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협회 정관을 변경해 문턱을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유정기 라벨정보협회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되고 인사말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는 한편 본지와 인터뷰에서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와 같이 첫마디를 던졌다. 라벨정보협회는 오래 전에 ‘동인회’라는 친목단체로 시작해 이제는 한국라벨정보산업협회로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라벨관련 인쇄업체들이 상당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사 수가 50개도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협회 가입을 위한 문턱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유 회장은 이번에 가입비를 대폭 낮춰 참여율을 높인다

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존 회원의 반발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협회의 규모도 중요하기 때문에 문턱을 낮춰 협회의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가입비 100만원에 월 회비를 별도로 받았다. 그러나 월 회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가입비를 30만원으로 낮춰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기존 회원들만의 협회가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단체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물론 더 낮출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30만원 선으로 정했다고 한다. 가입비를 낮춘다고 회원수가 갑자기 늘지는 않겠지만 가입 조건이 완화되고 이를 바



“동료 후배들에게 물려줄 것은 틀이 잡힌 협회일 것입니다. 그 틀을 잡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각종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해 라벨정보협회의 존재를 대내외에 알릴 생각입니다”

탕으로 입회 권고를 한다면 좀 더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이 유 회장의 생각이다.

회원간 유대강화에 적극 나서야

“회원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애경사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는 한편 회원사 상호 방문, 부부동반 야유회 등으로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라벨정보협회의 우선 과제는 회원 배가, 그리고 회원들간 유대강화다.

조직이 커지면 오히려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협회도 마찬가지다. 회원만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라 회원 모두가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원배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친목도모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협회 규모도 확대시키고 회원간 친목도모도 신경을 써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협회장이 된 이상 편히 있고자 할 생각은 없다. 새로운 라벨정보협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유 회장은 짧게는 1년 임기동안 많은 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술선수범하고 굵은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유 회장은 취임 후 협회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외 홍보활동 적극적으로

“라벨정보협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대외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른 인쇄분야에 비해 라벨인쇄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데도 아직까지 그러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라벨정보협회는 그동안 소규모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른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라벨업계는 현재 사회발전과 더불어 성장하는 업종으로 장비 규모나 가격, 회사 규모 자체도 점점 커지고 있다. 다른 인쇄분야는 성장세가 감소 경향에 있거나 유지 수준에 머무는데 비해 라벨인쇄분야는 다양화되고 성장하는 분야이다. 산업이

발달할수록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분야이다. 그런데 그동안 라벨분야는 타 인쇄분야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라벨인쇄분야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점과 대외 홍보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 회장은 안으로는 자긍심 고취, 밖으로는 대외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라벨정보협회가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언론매체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이것이 회원 배가운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긍심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유 회장의 생각이다.

회원들에게 타 단체나 모임에도 참석토록 유도

“동료 후배들에게 물려줄 것은 틀이 잡힌 협회일 것입니다. 그 틀을 잡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각종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해 라벨정보협회의 존재를 대내외에 알릴 생각입니다”

대외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유 회장은 인쇄관련 단체 및 모임에 적극 참석해 많은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미 10여 개에 달하는 모임으로 개인시간을 내기 어려울 정도지만 더 열심히 활동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줄 생각이다. 우선 회원들이 서울인쇄조합과 협회에 가입토록 권유해 인쇄인들끼리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지역이나 취미에 따라 여러 모임이 있는데 이런 모임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러한 활동이 회원 개인들에게는 교류의 폭을 넓히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협회로서는 이것도 대외 홍보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그래서 라벨정보협회 회원사가 늘고 서울인쇄조합에도 회원사들이 많이 가입하게 되면 라벨인쇄부회까지도 신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계획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지금보다는 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권익보호와 친목도모, 정보교류 등은 물론 인쇄분야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유 회장은 자신하고 있다. <글: 윤재호 부장·사진: 장홍일 기자>